

윤 대통령 “독점 따른 시장 왜곡 땀 국가가 필요한 대응”

정가로 변진 '카카오 먹통' 후폭풍

“독점 문제 개선 공정위서 검토”

“카카오망 국민 입상선 국가망”

김범수·이해진·최태원

국회 과방위 국감증인 채택

‘카카오 먹통 사태’의 후폭풍이 정가에도 휘몰아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의 ‘먹통’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데 (이번 사태 원인으로) 독점 얘기도 나온다. 구조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을 고민할 부분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지난)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 국민이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며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카카오의 ‘오너’ 격인 김 의장에게 따져 물었다는 생각이다.

과방위는 17일 오전 KBS·EBS를 대상으로 한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 명단에 김 의장을 추가 채택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아울러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회장의 경우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날은 24일 종합국감 증인 채택 기한일이였다. 국감 증인 채택은 출석일 7일 이전에 완료돼야 한다.

앞서 여야는 김범수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실무대표급을 증인으로 세우자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총제적 경영 시스템의 문제라며 사실상 카카오의 ‘오너’인 김 의장을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재난 대응 부실 논란까지 불거진 카카오와 계열사들의 주가가 급락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남동 연남포맥스에 설치된 화면에 이날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의 주가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윤 대통령 이사 시작... 이달 내 한남동 관저 입주 완료”

경호·보안 시설 보강 입주 지연

대통령 출퇴근 시간 절반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관저 이사를 마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달 안으로 관저 입주를 완료할 것”이라며 “이삿짐을 하나씩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남동의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해왔다.

청와대를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데 따라 인근에 관저도 새로 마련하는 차원이었다.

지난 7월 중순께 개략적인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경호·보안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면서 입주 시기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출근길 문답에서 관저 입주 시기에 대해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다 된 것 같아서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워낙 바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면 용산 집무실까지 출퇴근 시간이 편도 10분에서 절반 수준인 5분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거주했던 서초구 서초동 사저도 매각하

지 않고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처를 옮기게 되면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인근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공관을 새 공관으로 이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이 관저 입주를 계기로 만찬 절차를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외교부 장관 공관 내 연회장을 개조해 윤 대통령이 외부 인사들과 비공개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과 사회 각계 인사를 관저로 초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당정, ‘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 입법 등 논의

내일 협의회...과기장관 등 참석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시설 지정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17일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정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민간 데이터센터(IDC)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법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20년 입법이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정 협의에서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아 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 원인이 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기간시설에 준하는 데이터센터 관리 관련 향후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법법 개정안이 상임위는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의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됐다”며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일중 정책위의장도 “카카오 먹통의 일차적인 원인은 지하 전원장치에서 발생한 화재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완벽한 이중화를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소방, 방재, 보안 분야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33.1%...1.1%p 상승

리얼미터 조사...부정평가 64.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립을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성인 2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3.1%(매우 잘함 18.6%, 잘하는 편 14.5%)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4.2%(잘못하는 편 6.6%, 매우 잘못함 57.6%)로 나타났다.

전주 조사(4~7일) 대비 긍정 평가는 1.1%p 상승(32%→33.1%)했고, 부정평가는 1.6%p 하락(65.8%→64.2%)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해외 순방 과정에서 ‘비속어 논란’ 등으로 9월 4주차에 31.2%로 하락한 이후 2주 연속 소폭 반등했다.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9.1%p ↑), 서울

(4.4%p ↑), 대구·경북(2.2%p ↑)과 20대(4.2%p ↑), 30대(3.4%p ↑), 50대(3.2%p ↑), 보수층(2.2%p ↑) 등에서 올랐다.

부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4.4%p ↑), 광주·전라(5.5%p ↑), 60대(4.6%p ↑), 무당층(4.1%p ↑) 등에서 늘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가능!

첨단우리병원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합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